



소낭은 목 앞부분에 위치한 근육으로 된 주머니로서, 만약 어린병아리들이 적당하게 사료와 물을 섭취하였다면 소낭은 사료와 물의 혼합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소낭은 가득 차서 둥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며, 내용물은 부드럽고 죽 같은 농도여야 하는데, 만약 소낭의 내용물이 딱딱하거나 소낭의 벽을 통해 사료의 본래 질감이 느껴진다면 그 병아리들은 물을 적게 마셨거나 마시지 못한 것입니다. 입추 8시간 이후에는 병아리의 80%가 소낭이 차야하며, 24시간 이후에는 병아리의 95%가 소낭이 차야 합니다. 만약 소낭 채우기가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어린병아리를 위하여 종이 위에 사료를 충분히 뿌려주어야 하며(35g/수당), 병아리가 스스로 찾아서 섭취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사료가 뿌려진 종이 위에 어린병아리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료의 크기가 적당하게 분쇄되어 크럼블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24시간 이후에 어느 병아리라도 물의 섭취가 부족해 보이면 물의 섭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니플에 물방울이 있도록 수압을 조정해야 하며, 처음 24시간 동안은 급수기를 추가하여 병아리가 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